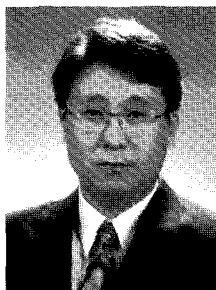


세계 당뇨병의 날과 당뇨병주간



남 홍 우

국립의료원 내과 전문의

당뇨병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550년경의 것으로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기 중엽 고려 고종 때 발간된 「한약구급방」에 소갈이라는 말로 당뇨병에 관해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되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1921년 반팅과 베스트가 인슐린을 발견하여 당뇨병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까지 당뇨병에 대한 지식은 미비하였다.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당뇨병 치료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여 정상 혈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인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당뇨병환자

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 지역 연구에 의하면 30세 이상의 주민에서 8%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된다.

당뇨병 인구가 증가함에 비례하여 당뇨병에 대한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어 당뇨병의 이러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계적으로는 세계당뇨병연맹(ID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당뇨병 전문의료진들의 모임인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환자들의 모임인 한국당뇨협회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

세계 당뇨병의 날

세계 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은 1950년 환자와 의사들이 모여 「당뇨병에 관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취

합, 전달하며 당뇨병환자들의 육체적, 사회·경제적 안녕을 위한 활동 전개 및 수행」을 목표로 발족하였다. 현재까지 세계당뇨병연맹(IDF)에 가입된 회원국은 124개국이고 세계당뇨병연맹의 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공공보건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자 세계당뇨병연맹과 세계보건기구는 공동으로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적 차원의 당뇨병 홍보를 위해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데릭 반팅의 생일인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제정하였다.

'세계 당뇨병의 날'에는 당뇨병의 원인, 증상, 치료 및 합병증에 대하여 일반인의 의식을 함양시키고 당뇨병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병임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행사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3억 5천만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다. 이번 '세계 당뇨병의 날' 주제는 올해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해'인 것과 연관지어 '당뇨병과 인권'으로 정하여 졌으며 주제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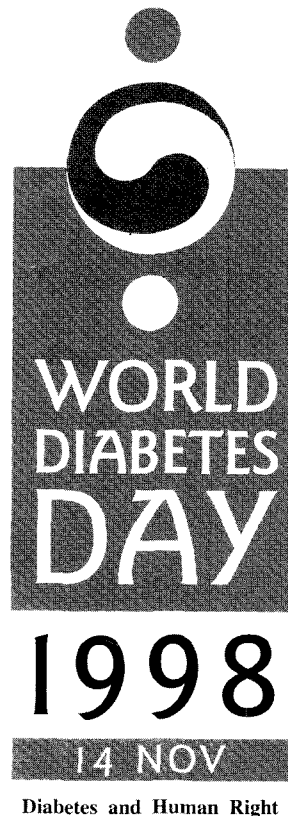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당뇨병주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당뇨병의 날'이 제정된 그 다음해인 1992년부터 대한당뇨병학회에서 11월 14일이 들어있는 주를 당뇨병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당뇨병주간은 11월 8일(일)부터 11월 14일(토)까지 '당뇨병과 함께 더 나은 삶

을'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당뇨병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언론 매체를 통한 당뇨병 홍보는 물론 병원별, 지역별 무료 혈당 측정, 무료 상담 및 공개 강좌, 걷기 대회 등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당뇨병환자와 가족,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공공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보다 많은 당뇨병환자들이 올해의 주제처럼 '당뇨병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DAK



'세계 당뇨병의 날'
로고